

“교육의 촛불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토요 촛불문화제

-2018년 9월 15일~11월 10일(시청 청계광장 옆 계단 매주 토요일 6시~8시)

이번 9월 15일(토) 6시부터 약 2달간 서울 시청 청계광장 부근(파이낸셜 빌딩 옆 계단)에서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촛불 문화제를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7일 정부가 수능 상대평가, 정시 30%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022 대학입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초중고 학교 혁신을 역행하는 일이며, 창의적 능력, 협업 능력 등을 중시하는 역량을 키우는 미래교육의 방향과 역행하는 일이기도, 교육계 대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9월 6일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면서 3대 비전 중 하나를 ‘혁신 능력 배양 및 구현’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핵심 내용은, 저출산 대책을 아무리 세워도 잘 안 되니 지금 있는 아이들이라도 잘 키우자, 아이 수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아이들을 혁신적, 창의적 인재로 키우겠다는 취지로 포용국가전략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를 어찌 해야 합니까? 교육부는 이미 지난 달에 2022대입제도 종합안을 발표하면서, 이 ‘포용국가전략’과 정반대되는 정책들을 발표해버렸으니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혁신 역량을 갖추게 하는 대입 정책을 지켜 달라고 했더니, 이를 거절하며 수능 정시 중심 5지 선다 문제풀이 상대평가 교육으로 국가교육 방향을 결정해 버렸지 않습니까? 미래를 과거로 삼키고, 5지 선다 문제풀이 인간으로 혁신교육의 창의적 인간을 밟아버리고 나서 이제 와서 ‘혁신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교육공약을 미래 중심으로 기조를 잡다가 2022 대입제도를 통해 모든 것을 무너트렸으니 나라 교육과 미래는 길을 잃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국가가 중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오늘의 것만 초점 맞추지 않고 내일에 초점 맞추는 교육공약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관점을 회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정신을 차리는 길은 국민들의 요구밖에 없습니다. 모순되는 정책을 모순이라 생각하지도 못하고 발표하는 이 혼란을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아야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9월 15일, 오후 6시)부터 교육의 촛불을 들고자 합니다. 이 촛불은 교육공약을 회복하려는 촛불입니다. 얼마나 오래 촛불을 들어야 바로 잡힐 것인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산과 전망은 접고자 합니다. 망가진 교육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드는 촛불이니, 촛불을 내리는 시점은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할 부모요 선생들이니까 말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행사명** :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토요 촛불문화제
- **기간** : 2018년 9월 15일~11월 10일(매주 토요일 6시~8시, 단, 추석 연휴 토요일 행사는 9월 21일 금요일 6시로)
- **장소** : 광화문 청계광장 옆(파이낸셜 빌딩 계단 광장)
- **주관단체**: 참교육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광주교사노동조합 등

2018. 9.10.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문의: 최현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02-797-4044 내선 501)